연극전용 극장으로 문화포교

천안불교문화원은 개관에 앞서 8월17일 지역어르신을 초청해 한암아트홀에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천안 한암사 불교문화원내에 연극전용 공연장이 문을 열어 화제다.

천안 쌍용동 한암사 천안불교문화원(원장 원철)은 2년 6개월여의 불사 끝에 한암아트홀(대표 김영렬) 개관식을 9월 3일 오전 10시 개최한다. 천안사암연합회 회장 대원 스님, 호법부장 묵암 스님, 성무용 천안시장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법회에서 김영렬 한암아트홀 대표에게 공연장을 상징하는 열쇠가 전달된다.

이날 개관 기념 음악회도 개최된다. 음악회는 서울예술단의 사물놀이를 비롯해 팝송가수 배에스텔 씨와 박정희 음악가의 공연, 불교학춤, 중요무형문화재 신영희 씨의 판소리 한마당 등 동서양의 음악이 어우러진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백여평 규모의 불교문화원 지하 1층에 자리한 한암아트홀은 130평 규모로 객석 176석과 음향영상 장치를 갖춘 연극전용극장. 김영렬 前 KBS 제작국장이 대표를 맡아 매월 2~3차례의 연극 공연과 뮤지컬, 아동극, 음악회, 명사특강 및 세미나 등을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9월 개관 직후에는 천안불교어린이뮤지컬단을 결성해 불교문화 보급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천안불교문화원장 원철 스님은 "한암아트홀을 불교문화와 대중문화를 아우른 복합적인 문화예술공간으로 키워나가고, 불교문화원 인근 5~6개의 소극장 건립을 추진해 이 지역을 천안 문화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서울에서 천안 · 아산 · 예산 · 당진 · 평택을 거쳐 목포로 이어지는 서해안 문화그린벨트 네트워크를 구성해 천안을 거점도시로 키워나가겠다는 원력도 내비쳤다.

한암사, 아트홀 9월3일 개관
어린이 뮤지컬단 결성 예정
"서해 문화그린벨트 거점 할것"

'붓다를 훔친 도둑'의 극작가이기도 한 원철 스님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생불사"라며 "천안불교문화원을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예비문화성지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41)592-4747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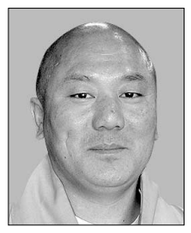
혜향 스님 광주사암련 회장 선출

천성산 살리기 참여 결의

제 16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를 이끌어 나갈 회장단이 구성됐다.

광주사암련은 8월 19일 무각사 불교회관에서 회장단 구성을 위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향림사 주지 혜향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30여 회원 사찰 스님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 상임 부회장에 석장 스님(문빈정사)과 감사에 도산(대각사), 설래장(금광사)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이날 혜향 스님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원로대덕스님들의 뜻을 받들어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사암련은 이날 총회에서 '지율스님과 천성산살리기 100만인 서명'에 사암연합회 차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고 성금모금에 들어갔다.

인터뷰 혜향 스님

"환경부서 구성 투명운영 할것"

"먼저 광주 불교계 화합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승속을 떠나 하심(下心)하며 직접 뛰어다니겠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16대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 혜향 스님(향림사 주지)은 "광주 불교계 화합"이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라고 지적하고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광주 사암련의 숙원사업인 불교회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교회관은 공인된 신행단체가 모여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불자라면 누구나 쉽게 찾도록 사암련의 문턱을 낮추고 모든 운영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교, 신행은 물론 환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스님은 "시민연대,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 대사회문제에 불교계가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혜향 스님은 1972년 대흥사에서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했다. 현재 향림사 주지, 광주불교대학장을 맡고 있다.

이준엽 기자

목포·신안·무안 통합 사암련 결성

초대회장에 경훈 스님

목포, 신안, 무안 불교를 통합하는 서남통합불교사암연합회(회장 경훈 · 사진)가 창립됐다.

전남 서남지역 각 사암연합회는 8월 13일 3개 지역을 통합하는 사암연합회를 결성키로 하고 초대회장에 경훈 스님(무안 약사사 회주)을 추대했다.

이날 창립된 서남통합불교사암련은 목포 법주사 주지 혜원, 신안 일심사 주지 현암, 무안 마곡사 주지 정평 스님을 지역 지회장으로 선임하고 첫 행사로 8월 20일 무안 백련축제장에서 '국태민안백련축제 대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추대된 경훈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남 서남지역은 같은 생활권으로 3개 시군 불교연합회가 힘을 모아 지역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선암사, 27일 전통차 심포지엄

지허 스님 등 논문발표

한국 전통차를 바로알기위한 '한국전통차 문화심포지엄'이 8월 27일 순천 선암사 만세루에서 열린다.

태고총림 선암사가 주관하고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선암사 주지 지허 스님과 조충훈 순천시장, 김재기 순천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서는 지허 스님은 '한국 전통차의 법제와 선 · 다맥'에 대해 발표하고, '호남지역의 차문화'(김상현 동국대 교수), '호남의 구산선문과 그 문화'(최인선 순천대 교수), '한국전통차의 효능'(심연옥 국민대 교수), '국내산 야생차 및 발효차의 특성'(최옥자 순천대 교수) 등 전통차에 관한 논문이 발표된다.

이에 대해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 이해주(서울대), 한희준(서울대), 안상수 교수(홍익대)와 유창종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종합토론을 펼친다. (061)754-5247

이준엽 기자

전남경불회 회장 이 · 취임
신임회장에 이병욱 서장

전남지방경찰청불자회는 8월 11일 광주 향림사에서 회장단 이 · 취임식을 봉행했다.

전남 경찰청, 경찰서, 도청 불자회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전임 천승범 회장(고흥 경찰서장)이 이임하고 신임회장에 이병욱 장흥경찰서장이 취임했다.

신임 이병욱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 선을 행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사회의 참된 등불이자 경찰불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태고종 보우승가대학 개원
의식 · 경전연구반 2년 과정

태고종 보우승가회(회장 호명 · 서울 염불사 주지)는 서울 창신동 원각사에 보우승가대학을 9월 1일 개원한다. 보우승가대학은 1년 과정으로 의식반과 경전연구반으로 나누어 첫 학인을 모집, 9월 9일 입학식을 개최한다.

의식반은 기본반과 전문반으로 구분, 영산재와 불교의식 등을 이론과 실수를 겸해 운영된다. 강의는 영산재보존회 이수자인 설운스님과 경허 스님, 법성 스님 등이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4~7시 진행한다.

스님과 불자들이 모두 입학할 수 있는 경전연구반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의 원각경 강의를 비롯해 금강경, 능엄경, 화엄경, 선가귀감, 육조단경 등 경전 중심의 수업이 이뤄진다. 수업은 매주 금요일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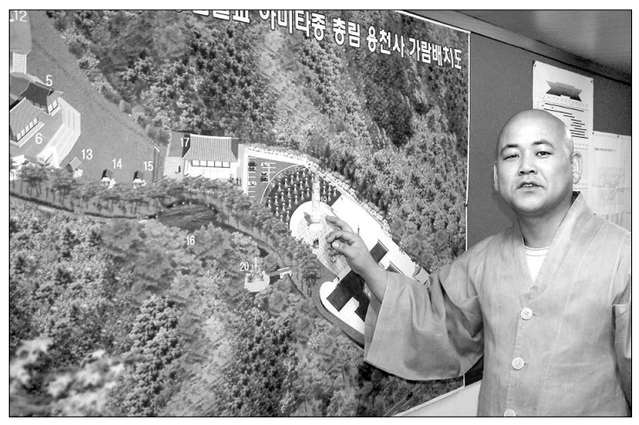
보우승가대학은 현재 30여평의 강의실과 6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주차장 등을 완비했으며, 내년 3월까지 2년 전문과정으로 개편, 운영될 예정이다. (02)763-5213

박봉영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음성 용천사

총림 불사 위해 진력



불사관리 총감독을 맡고있는 아미타종 사회부장 만경 스님이 용천사 조감도를 펼쳐 불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에 위치한 용천사. 3만 3천여평의 부지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터파기와 골조 슬라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입구인 일주문과 요사, 사무실, 법당이 자리할 2층 규모의 보타전이 골격을 드러냈다.

또 관세음보살입상이 세워질 터와 납골당으로 사용되는 극락전의 자리는 터파기와 기본 토목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다.

용천사는 올 11월 관세음보살입상 점안을 시작으로 내년 부처님오신날을 즈음해 사찰의 형태를 갖추는 1차 불사가 완료된다. 2009년이면 통합불교 아미타종(총무원장 법안) 종도와 신도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될 총림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지금까지 용천사 불사에 투입된 비용은 약 15억여원. 총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보다 몇 배가 넘는 불사비가 들어가야 가능하다. 총 20여동에 달하는 대형불사이기 때문이다. 총림으로서 갖춰야 할 선원과 강원, 율원을 비롯해 대웅보전, 대적광전, 무량수전, 금강문, 천왕문, 불이문 등이 2차 불사기간에 세워질 전각이다.

이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납골시설과 종교시설의 허가를 얻은 지난해 2월. 평소 불자들이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아미타종 총무원장 법안 스님이 종단의 총본산의 성격을 함께 갖춘 도량으로 일구겠다는 서원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스님은 막대한 불사비와 신도들의 보시금에 의존하는 사찰운영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 납골당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납골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사찰 건립계획을 알리고 마을회관을 세워주는 등의 활동을 통해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선원 · 강원 등 갖춰 2009년 완공
납골시설 건립 통해 사찰 재정자립

용천사는 불사현장 한켠에 임시 법당을 마련해 두었지만 아직 신도가 없다. 하지만 법안 스님은 국내 최초로 660cm 통돌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입상을 점안하는 11월 이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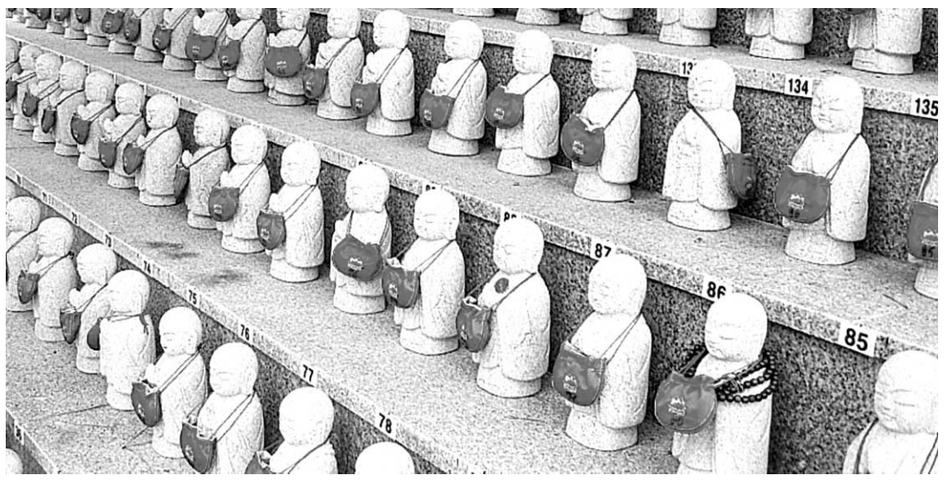
올바른 스님과 불자들을 길러내는 도량을 만들겠다는 스님의 서원에 공감해주는 불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다.

법안 스님은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까지 귀의할 수 있는, 큰 불교를 할 수 있는 도량으로 가꾼다는 각오로 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043)881-3108

글 · 사진/음성=박봉영 기자

2004년 엄마 · 아빠 태아영가 49일 천도 참회기도 발원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 아빠의 참회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영가를 위해 참회 기도합시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엄마아빠참회기도도량 **구 담 사**

◉ 기도 입재일 : 양력 9월 5일 (첫째주 일요일)
◉ 기도 회향일 : 양력 10월 24일 (일요일)
◉ 시간 : 오전 10시 30분
◉ 기도 동참금 : 49일 1회 - 49재를 한 번 할 경우 - 10만원
49일 7회 - 49재를 7번 할 경우 - 40만원
◉ 위 패 비 : 한 위패당 5천원
※참고 : 동참금을 완불하셔도 위패비 접수 안 한 분은 축원 위패가 없습니다.
※알림 : 기도금 위패비 완불하신 분은 위패봉안 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준 비 물 : 분유(우유), 과일, 사탕, 초코파이 등
(5재때는 관욕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옷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 입재, 3재, 5재, 7재때만 운행
• 시간 - 오전 8시까지(강변역 2호선 테크노마트 주차장 입구), (강북 방향 도봉산역 1호선, 7호선 연결)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포천방향쪽)
※ 입재, 3재, 5재, 7재때만 운행
◉ 대중 교통 안내 : • 강변역 동서울 터미널 - 이동하차 (법회 때만 운행)
• 수유리 전철역 터미널 - 이동하차 (법회 때만 운행)
• 상봉동 상봉 터미널 - 일동행 → 연곡 4리(제비울 하차) - 이동

※법보시용 : 전화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새생명 살리기 만등불사 안내
저의 구담사에서는 한 생명 참회기도와 또 한 생명 살리기 위해 만등불사를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 광명의 등불은 태어나지 못한 태아는 참회하고, 한 생명 살생을 줄이기 위해 광명을 비추어 낙태 없는 깨끗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 태아영가등 : 1인 영가 1만원
☏ 태아 · 영가 만등불사금 : 국민은행 217-01-0339-914 (이동순) 농 협 225050-56-033370 (이동순)

◆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이동면 연곡 4리 595번지 대표 (031)533-2855, 2854, (02)487-3254 / 팩스 (031)532-2441 / 홈페이지 한글 구담사. http://gudamsa.org